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명		학번	
단과대학		학과(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p>(한글) 유럽 미술관의 전시 작품 속의 인간 심리 탐구</p> <p>(영문) Study on the Psychology of the Art in European Museum</p>		
지도교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과제의 1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많이 다루었다. - 명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정신질환을 DSM-5를 사용하여 진단 기준 및 증상을 설명한 점에서 정확한 정보가 없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정신질환들을 일반 대중에게 전문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 기존에 미술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던 심리학적 내용이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학생이 자주적으로 선정한 주제로 과제를 진행하면서 학생의 독립적이 학업 성취라고 볼 수 있다. - 도전과제를 실행하면서 다양한 외국 경험과 예술적 견문 그리고 심리학적 지식의 축적으로 위 학생의 글로벌적인 소양을 향상시켰다. 		

1. 도전 과제의 목표

- 명화를 통해서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다.
- 심리학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 명화에서 심리학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 해당 명화와 심리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 콘텐츠 제작과 배포로 대구대학교의 DU-도전학기제를 홍보하며 대구 대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본교를 대내외로 홍보 할 수 있다.

2. 도전 과제 내용

탐방 국가 및 도시	탐방 기간	방문 박물관	과제 주제
프랑스 파리	4/27 -5/1	루브르 박물관	큐피드는 마마보이 메두사호의 뗏목 생존자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오르세 박물관	올랭피아의 성 상품화
		오랑주리 박물관	해당 사항 없음
오스트리아 빈	6/15 ~ 6/17	벨베데레 궁전	훔쳐보는 게 좋은 사람들, 관음 장애

			클림트의 키스 속 연인들은 도취적인 사랑인가 성숙한 사랑인가?
--	--	--	------------------------------------

3. 도전 과제의 성과

- ◆ 명화를 통해서 심리학 키워드를 찾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 ◆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 ◆ 한국어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영어 원문을 참고하는 등 글로벌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 ◆ 유럽의 다양한 미술관을 탐방하면서 서양 예술에 관한 식견이 넓어졌다.
- ◆ 교과서적인 심리학적 지식을 탈피하고 현재에 연구되어 지는 심리학 분야와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자주적인 학습을 연습할 수 있었다.
- ◆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대중들과 지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개설하였다.

4. 자기평가

<유럽 미술관의 전시 작품 속의 인간 심리 탐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본인 스스로 느낀 것은 자주적인 지식 획득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과제 계획 당시와 진행 초기 당시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과제를 진행하면서 미술관에서 직접 마주한 작품들 중 본인이 느끼기에 에너지가 큰 작품들 혹은 감상 이후에도 마음에 남은 작품들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존에 존재했던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초점을 맞추고 싶은 주제로 자주적으로 도전과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도전학기제 계획서에 학과장 교수님께서 의견서에 “동서양의 인간 심리를 비교 고찰할 수 있는 기회” 작성해주셨었다. 도전과제 계획 당시에는 유럽의 미술관을 탐방하면서 제작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유럽권의 인간 심리에만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과제를 진행함에 따라 해외의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와 국내 연구를 비교 고찰하면서 동서양의 인간 심리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과제의 특성 상 해외탐방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초기 계획에서의 예산이 고액이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 유명 미술관에 초점을 맞춘 탐방 으로 1,500,000원이었던 예상 소요 예산을 50%이상 삭감하여 약 600,000 정도를 지출함에 따라 경제적인 면 또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한 학기 동안 본 과제를 진행한 덕분에 ‘심리학’이라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매사에 내게 심리학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나의 두 번째 관심사인 예술을 나의 전공과 연결시켜주는 즐거운 도전을 가질 수 있었다. 본 과제를 통해서 나 스스로 심리학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남들과 공유하면서 나눔의 미학 또한 경험할 수 있었다.

5. 최종 결과물

- 1) 3 주차 프랑스 탐방

가) 올랭피아의 성 상품화

<올랭피아의 성 상품화>	
 <p style="text-align: center;">올랭피아의 성 상품화</p>	 <p style="text-align: center;">혹시 이 그림을 기억하시나요?</p> <p>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많은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우리에게 발레복을 입은 소녀를 그린 미술가로 친숙한 마네의 <올랭피아>입니다.</p> <p>이 그림은 어찌든 다른 여성 누드화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왜일까요?</p>
-1-	-2-
<p>그림 가장 오른쪽의 검은 고양이 꼬리를 세우고 낯선 사람을 경계합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성적 욕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p> <p>또한 그림에 나타나는 흑인 여성은 당시 시대적으로 매춘부의 시종을 드는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누워있는 올랭피아에게 건네며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p> <p>이 작품의 중앙에는 거만하지만 뇌쇄적인 모습으로 누워있는 올랭피아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에 묶여있는 리본은 마치 그녀가 주고 받는 선물처럼 물건이라는 느낌을 주게 만듭니다.</p> <p>우리는 그림의 요소들을 토대로 이 올랭피아가 매춘부라는 것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습니다.</p> <p>실제로 올랭피아라는 이름은 당시 파리의 매춘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예명이라고 합니다.</p> <p>그렇다면 이 <올랭피아>의 주인공은 그림의 모델 올랭피아 본인일까요?</p>	<p>이 작품은 관람객 본인을 작품 속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관람객 본인이 주인공이 된다고 느껴집니다.</p> <p>바로 자기 자신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올랭피아를 방문한 인물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p> 
-3-	-4-
 <p>성 상품화된 인간의 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것으로, 성 그 자체 또는 성과 관련된 것을 판매하거나, 특정 제품에 성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그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p> <p>다양한 성 상품화 중에서도 성매매는 가장 높은 수위의 성 상품화로서 190년대 물질 만능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고 1980년대에 와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p>	 <p>성 상품화와 관련해서 볼 때, <올랭피아>와 같이 주로 여성이 성을 판매하고 남성이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입장이었습니다.</p> <p>하지만 오늘날은 성풍속도가 많이 변화 하여 남성의 성 또한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p>
-5-	-6-



그렇다면 성 상품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 상품화를 더 심각하고 부도덕하고, 비우호적인,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지각하였습니다.

이은혜, 김유진, 김유진

-7-


이러한 경향성은 여자 대학생이 여성의 성 상품화를 남학생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남자대학생들은 남성의 성 상품화에 대해서 여성의 성 상품화에 대해서 더 거부적이었습니다.



이은혜, 김유진, 김유진


-8-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성의 성 상품화에 대한 반응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833년 <올랭피아>의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관람객의 입장도 한번 상상해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올랭피아>를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9-



본 콘텐츠는 대구대학교 에이스사업단에서 진행하는 DU-도전학기제의 결과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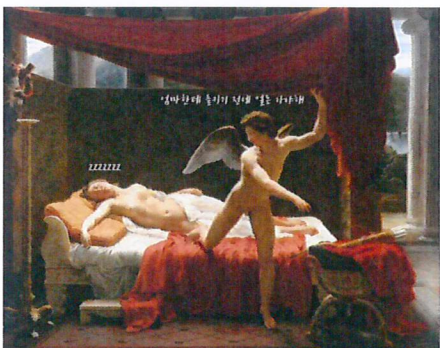
<유럽 미술관의 전시 작품 속의 인간 심리 탐구> 과제를 통하여

세계적인 명화를 통해서 심리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

나) 큐피드와 의존성 성격장애

<큐피드는 마마보이>




큐피드는 마마보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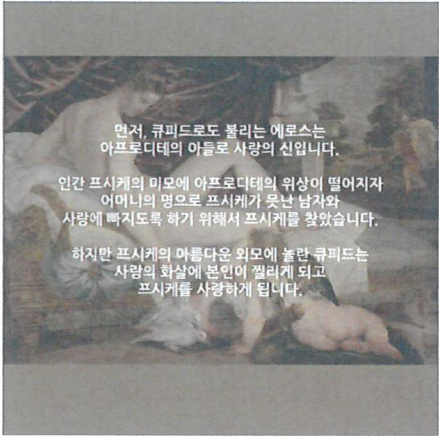
프시케와 큐피드의 사랑은 오랫동안 선호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만큼 프시케와 큐피드를 그린 작품들과 조각들은 무수히 많죠.

지금 보는 이 그림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프랑수아 에두아르 피코 <에로스와 프시케>입니다.



프시케와 큐피드의 사랑은 오랫동안 선호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2-



먼저, 큐피드로도 불리는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사랑의 신입니다.

인간 프시케의 미모에 아프로디테의 위상이 떨어지자 어머니의 명으로 프시케가 못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프시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프시케의 아름다운 외모에 놀란 큐피드는 사랑의 화살에 문인이 쏠리게 되고 프시케를 사랑하게 됩니다.

-3-



그 후 프시케는 신탁을 받아 큐피드와 결혼을 하지만 이 큐피드는 프시케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두려워 몰래 프시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프시케를 떠나고 어머니가 프시케에게 고난을 시킬 때도 나타나지 않은 큐피드는 마마보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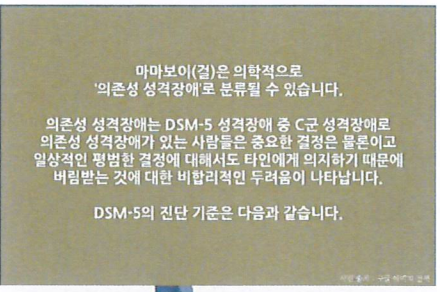


마마보이는 신화 속 큐피드에게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마마보이'를 검색하면 마마보이 남자친구 혹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마보이는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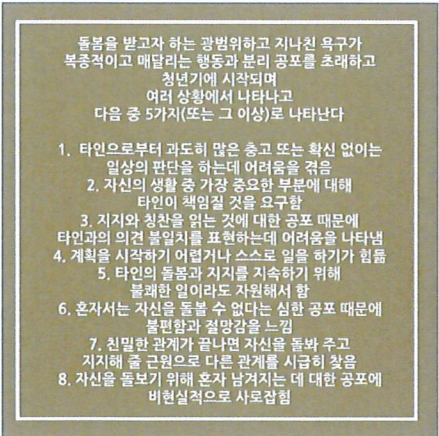


마마보이(걸)은 의학적으로 '의존성 성격장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DSM-5 성격장애 중 C군 성격장애로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평범한 결정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DSM-5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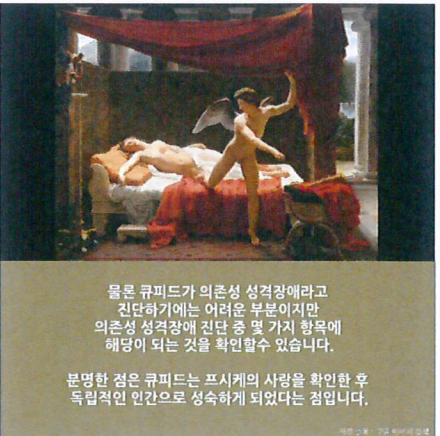
-6-



돌봄을 받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지나친 욕구가
복중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분리 공포를 초래하고
청년기에 시작되며
어려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또는 그 이상)로 나타난다

1. 타인으로부터 과도히 많은 충고 또는 확신 없는 일상의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2. 자신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타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함
3. 지지와 칭찬을 얻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냄
4. 계획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일을 하기 힘들음
5. 타인의 돌봄과 지지를 지속하기 위해 불쾌한 일이라도 자원해서 함
6. 혼자서는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심한 공포 때문에 불편함과 절망감을 느낌
7.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자신을 돌봐 주고 지지해 줄 근원으로 다른 관계를 시급히 찾음
8. 자신을 돌보기 위해 혼자 남겨지는 데 대한 공포에 비현실적으로 사로잡힘

-7-



물론 큐피드가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의존성 성격장애 진단 중 몇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큐피드는 프시케의 사랑을 확인한 후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8-

그리스어로 프시케는 '정신'을
큐피드의 그리스식 이름인 에로스는 '사랑'을 뜻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정신은 이처럼 험난한 과정과 노력을 거쳐야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9-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ACE+
잘 가르치는 대학

본 콘텐츠는 대구대학교 에이스사업단에서 진행하는
DU-도전학기제의 결과물입니다.

<유럽 미술관의 전시 작품 속의 인간 심리 탐구>
과제를 통하여

세계적인 명화를 통해서
심리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

다) <메두사호의 뗏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메두사 호의 뗏목 생존자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메두사 호의 뗏목 생존자들은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1-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7.16m x 4.91m의 대형 작품으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의 거대한 복도에 전시되어 있는 테오도르 제리코가 제작한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2-



<메두사 호의 뗏목>은 당시의 끔찍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1816년 프랑스의 루이18세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식민지화를 위하여 거대한 군함을 출항시킵니다.

바로 이 배가 메두사호입니다.
메두사호의 선장은 루이 18세의 측근 소마레 선장으로
일명 낙하산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의 미숙함과 무능함은 메두사호의 침몰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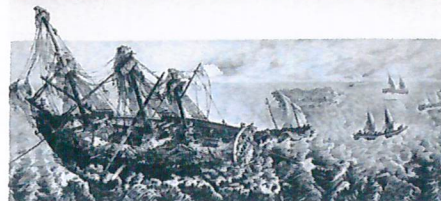
1816년 7월 2일 메두사호는
아프리카의 앙조에 걸려 침몰합니다.

이 때 고위 관료 및 고급 선원 230여명은
구명정을 타고 대피한 반면

나머지 사병과 일반 서민 149명은
급조한 뗏목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뗏목을 구명정에 연결해 가기로 하였지만
선장이 이 뗏목을 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4-

이 후 149명은 표류를 하면서 무더운 태양 아래 갈증과 질병으로 사망자들이 속출하여 표류 13일째 이아르귀소에 의한 극적인 구조 당시 생존자는 15명 뿐이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사망한 5명을 제외한 최종 생존자는 단 10명 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매두사의 뗏목에서 살아남은 한 생존자가 경험담을 폭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료들 죽이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끔찍했던 일들이 공개되면서 국가와 사회 지도층의 부조리가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5-



제리코는 이 사회적인 이슈를 화폭에 담기 위해서 사건 경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자를 찾아 증언을 취재하고, 시체를 스케치 하는 등 사실주의 화회 정신에 입각하여 이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6-



그렇다면 생존자 10명은 이후 어떻게 지냈을까요?

몇몇 자료에 의하면 생존자 10명은 매두사호의 사건 이후로 정신병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7-



우리는 이에 이 생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DSM-5에 의한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

A. 실제 혹은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정복력에 다름과 같은 행사 중 하나(혹은 그 이상)의 발생으로 노출되었다.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함, 심각한 폭력 또는 사고 경험에 가까운 침략이나 친구에게 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됨. 외상 사건의 원호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노출.

B. 외상 사건과 관련된 다음의 침수 증상 중 하나(혹은 그 이상)가 영구적이다. (1) 사건에 대한 반복적 침수적인 괴로운 회상 (2)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 (3) 경향이 되살아나는 플래시백 (4) 연관된 자극경험 시 회로 뒤꿈 (5) 연관된 자극경험 시 생리적 반응

C. 외상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혹은 둘 모두에게 나타난다. (1)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생각, 느낌, 대화 회피 (2) 일을 야기시키는 의무적 요구를 회피

D. 외상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적, 기분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거나 악화된 현상이 다음 중 이상에서 나타난다. (1) 외상경험에 대한 믿음 (2) 자기 가치, 타인 사생활, 세계에 대해 계속적이며 악화되는 부정적인 믿음이나 기대 (3)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 하도록 하는 외상적 지견의 원인 또는 결과에 대한 왜곡된 인지 (4)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적 상태 (5) 흥미감소 (6) 타인에 대한 무관심 (7) 긍정적인 감정은 경험하지 못하게 됨

E. 것들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이것이 사회적, 직업적 혹은 중요한 영역에서의 기능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을 주거나 손상을 준다.

-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에 관한 편견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의심이 되면서도 치료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충격적인 상황을 겪은 후 괴로움에 휩싸이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치료를 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10-

라) 참고문헌

V. Mark Durand, David H. Barlow (2017). 이상심리학. 사회평론아카데미.
 현대의 성 상품화에 대한 인식
 신선미, 정태연. (2005). 성 상품화에 대한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603-617.

김상준 (2016). 그리스 신화로 보는 우리 내면의 은밀한 심리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보아스.
 김윤덕 (2017년, 11월 13일). 혹시 마마보이?. *조선닷컴*. 검색일 12월 13일, 2018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13/2007111301263.html
 조이루 (2017년, 12월 8일). 성격장애/DSM-5 진단기준, 하위유형의 종류. *조이루의 Joylife*. 검색일 12월 13일, 2018년, 출처 : <https://blog.naver.com/dlfgns1/221158638008>
 류병학 (2018년, 6월 21일). [류병학의 사진학교]69.죽은‘매두사의뗏목’은말한다. *중부매일*. 검색일 12월 13일, 2018년, 출처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8499>
 전준엽 (2018년, 9월 4일). 예술로 기록된 ‘勝者의 역사’… 권력은 갖지만 作品은 남았다. *문화일보*. 검색일 12월 13일, 2018년,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401032212000001>

2) 4 주차 오스트리아 탐방

가) <잠자는 여성>과 관음장애

<훔쳐보는데 좋은 사람들, 관음 장애>	
 <p>훔쳐보는데 좋은 사람들, 관음 장애</p> <p>-1-</p>	 <p>확장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p> <p>단추, 벨트, 모자 등 일명 웨어러블 몰카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p> <p>옆에 있는 사람이 볼펜을 만지작거리고 안경을 습관적으로 만지는 것만 보아도 혹시, '혹시'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p> <p>현재 한국 여성들은 몰래카메라 즉, 몰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p> <p>사진 출처: 한국일보</p> <p>-2-</p>
<p>왜 몰카범들은 몰카를 찍는 것일까요?</p> <p>대부분 몰카 범치는 성적 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장애에서 비롯됩니다.</p> <p>관음이란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타인이 옷을 벗거나 나체로 있는 것을 몰래 관찰하는 행위입니다.</p> <p>관음장애 환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대상을 찾습니다.</p> <p>개인적인 곳에서 성적 만족을 즐기는가 하면 대중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을 몰색하기도 합니다.</p> <p>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p>  <p>-3-</p>	 <p>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빈의 벨베데레 궁전에서 만날 수 있는 오스트리아 화가 요한 발티스트 라이더의 작품입니다.</p> <p><Slumbering Woman>이라는 작품명처럼 이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는 잠자고 있는 이 여성을 보고있습니다.</p> <p>-4-</p>

그런데,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예술계는 이 작품이 관음증을 유발하고 노골적이다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이 잠자는 여자를 보는 시선은 마치 우리 이 여성을 훑쳐보는 구도입니다.

이 잠자는 여인의 사생활을 훑쳐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미술 회화에서는 관음적인 구도는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앵그르의 <터키탕>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5-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몰카와 미술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누드는 알게모르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음장애는 어떻게 진단하는 걸까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제공하는 기준인 DSM-5에서는 관음장애 진단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6-

A. 옷을 벗는 과정에 있거나 성행위에 몰입해 있어, 눈치채지 못하고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관찰하는 행위를 통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이 성적 공상, 성적 충동 또는 성적 활동으로 발현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성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혹은 이러한 성적 충동이나 성적 공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C. 이러한 성적 흥분을 경험하거나 성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은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7-

관음증적인 경향이 생기는 원인이나 뇌기능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어린 시절 성적인 트라우마나 성적 학대 등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관음적인 성향을 조금씩은 갖고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8-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몰카와 회화에서의 누드화 외에 관음 장애와 연관이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9-

본 콘텐츠는 대구대학교 에이스사업단에서 진행하는 DU-도전학기제의 결과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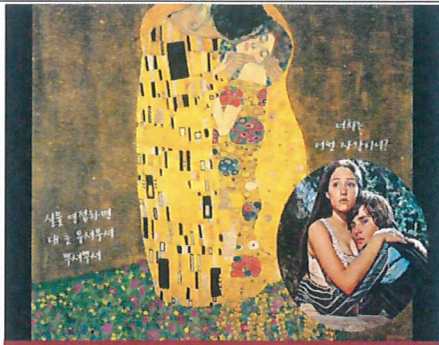
<유럽 미술관의 전시 작품 속의 인간 심리 탐구> 과제를 통하여

세계적인 명화를 통해서 심리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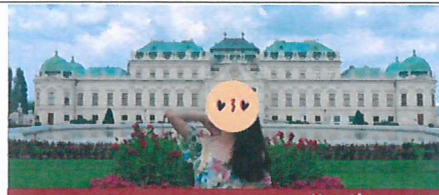
나) 클림트의 <키스>와 사랑의 삼각형 이론

<클림트의 키스 속 연인들은 도취적인 사랑인가 성숙한 사랑인가?>	



**클림트의 키스 속 연인들은
도취적 사랑인가 성숙한 사랑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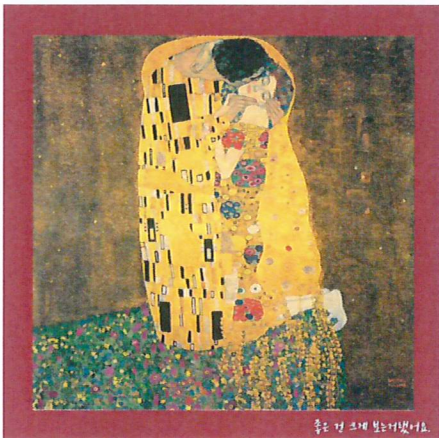
-1-



말들이 사랑을 지어는 그 곳...
오스트리아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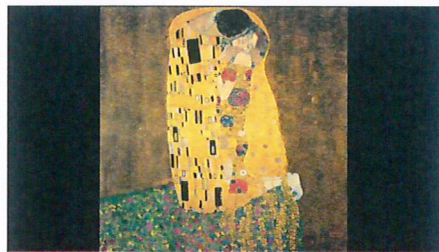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꼭 가야할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자허토르테 원조 가게 카페 자허와
그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가 있는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2-



좋은 것 오래 보는 것뿐이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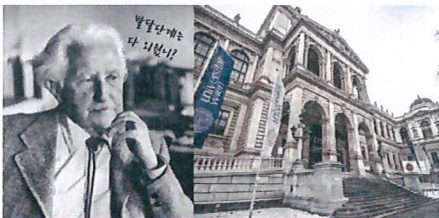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입니다.

금색 빛으로 화려한 장식성을 자랑하는 이 그림은
두 남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자를 강렬히 껴안은 남자의 입맞춤 그리고 그 입맞춤을 받는 여
자는 황홀한 표정으로 남자를 껴안고 있습니다.
여성의 두 발이 날떠러지에 닿아 불안해 보이는 이 들의 사랑은
위험해 보이지만 서로를 신뢰하는지 편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4-



↑ 에릭슨의 발달단계 역시 볼이요. ↓

마침 빈에서 공부한 심리학자 에릭슨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인간에게 가장 지배적인 덕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사랑을 '공유된 정체감을 가진
배우자와 파트너의 상호성'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일기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일호씨 / 1990년 10월 10일

-5-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톨버그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는 사랑이 하나의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친밀감, 열정, 결심/헌신 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요소의 균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설명 합니다.

서일호씨 / 1990년 10월 10일



서일호씨 / 1990년 10월 10일

-6-



스틴버그는 사랑을 총 8가지 상태로 설명합니다.

친밀감 요소만 있으면 '좋아함'이라는 사랑입니다. 강한 열정이나 헌신이 없어 상대를 향해 결합되어 있고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열정 요소만 있는 경우는 일명 '첫눈에 빠진 사랑'으로 도취성 사랑입니다. 이 경우 상대를 이상화하는 망상으로 치우친는 사랑입니다.

친밀감과 열정 요소의 결합은 '낭만적 사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과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서로를 느끼지만 둘 간의 지속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7-

친밀감과 헌신 요소의 결합일 경우는 '우애적 사랑'으로 열정의 주된 원천인 육체적 매력이 약해진 오래된 우정 같은 결혼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세 요소가 모두 결합한 상태를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랑하는 연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사랑일지 모릅니다.

-8-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는 사랑을 회화한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연인들은 스톤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중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9-

본 컨텐츠는 대구대학교 에이스사업단에서 진행하는 DU-도전학기제의 결과를입니다.

<유럽 미술관의 전시 작품 속의 인간 심리 탐구> 과제를 통하여

세계적인 명화를 통해서 심리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

다) 인스타그램



그림. 2부 인스타그램 업로드



그림. 1부 인스타그램 업로드

라) 참고문헌

- V. Mark Durand, David H. Barlow (2017). 이상심리학. 사회평론아카데미.
관음증-정신건강장애-MSD 매뉴얼-일반인용. (n.d.). 검색일 12월 13일, 2018년, 출처 :
<https://www.msmanuals.com/ko-kr/%ED%99%88/%EC%A0%95%EC%8B%A0-%EA%B1%B4%EA%B0%95-%EC%9E%A5%EC%95%A0/%EC%84%B1/%EA%B4%80%EC%9D%8C%EC%A6%9D>
정락인 (2018년, 8월 13일). 관음증에 빠진 두 얼굴의 몰카범들. 시사저널. 검색일 12월 13일,
2018년, 출처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6893>
효제김재홍 (2015년, 2월 28일). 성도착장애, 변태성욕증, 관음장애, 노출장애, 아동성애장애
DSM-5진단기준. 블루캐쉬[BLUE CASH]. 검색일 12월 13일, 2018년, 출처 :
<http://blog.naver.com/heyonsaju/220286657836>
곽금주 (2015년, 2월 9일). 클림트가 그린 사랑의 심리. 한국일보. 검색일 12월 13일 ,2018년,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2092018133895>
사랑의 삼각형 이론. (n.d.). 검색일 12월 13일, 2018년,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8639&cid=41991&categoryId=41991>